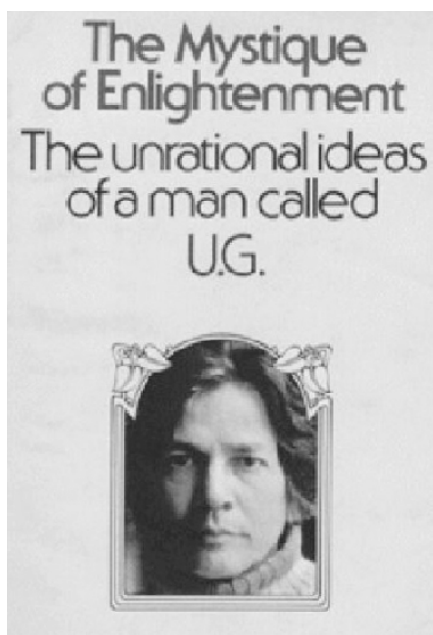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

U. 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4부)

| U.G.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U.G.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4부)

8일째 날 소파에 앉아 있던 중에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몸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에너지였죠. 몸도, 소파도, 오두막도 그리고 전 우주가 흔들리고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 진동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런 떨림의 시작점이 밖인지 안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 지점을 꼽을 수도 없었어요. 몸 전체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런 현상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진동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저로선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앉아있을 때마다 간질발작과 비슷한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3일 동안 U.G.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뒤틀렸다.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서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고 그는 말한다. 그 같은 에너지 폭발은 누워서 이완되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났고 6개월 동안 이어졌다.)

몸은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죠. 그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폭발이 일어나면(그 에너지는 당신의 에너지도 아니고 나, 하느님 혹은 그 어느 것의 에너지도 아닙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범람한 강과 같습니다. 그때 작용하는 에너지는 몸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몸의 한계에는 관심도 없죠. 그때의 에너지는 그 자체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지요. 황홀하고, 지복스러운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이후 수개월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 후에 고통

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흐름이 몇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에너지가 제멋대로 이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시계방향이었다가 반시계 방향이었다가... 원자처럼 안에서 움직입니다. 몸속 어느 한군데가 아니라 몸 전체에서 움직이지요. 젖은 수건을 비틀어 짜듯이 온몸이 그렇게 쥐어 짜이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은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 당신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어디서 내려오냐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느냐고요? 그것은 매번 새롭고(이상하죠) 다른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별안간 시작되는 식이죠. 처음에는 개미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침대에 빈대가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살펴보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누우면 같은 일이 또 생겨요... 머리카락에는 전기가 생겨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요.

온몸에서 고통이 느껴집니다. 생각이 이 육신을 통제하는 수준은, 전체 신진대사를 약간 느슨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바뀌고 있었을 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바뀌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지요(몸소 보여주며). 이 손목이 6개월 동안 심하게 아프다가 관절이 돌아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목의 움직임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움직임을 무드라(mudras(신비한 몸짓))라고 부르는 겁니다. 손의 움직임이 전과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땀속 골수까

지 아팠습니다. 모든 세포가 변하기 시작했고 6개월 동안 그런 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성호르몬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원 에 유방이 생겼습니다.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자세히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기록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됐다가 3년이 걸려서 마침내 몸에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질문 :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U.G. : 없습니다.

질문 :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U.G. :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이 그에 대한 설명을 읽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흔아홉 번째 생일 무렵의 어느 날, 뭔가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른 감각이 변했고, 셋째 날에는 또 다른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협할 수도 있어요. 외부로 나타난 현상만 모방하려 든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흉내내고 나서는 뭔가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지요. 사실,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모방만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그 상태는 자연스러운 것

입니다.

(U.G.의 친구들은 U.G.의 가슴, 목, 머리에 있는 차크라 지점들에서 오돌도돌한 돌기가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아랫배에는 그런 돌기가 시가 모양으로 띠를 형성하며 수평으로 부풀어 올랐다. 배꼽 위로는 아몬드 모양으로 딱딱하게 부풀어 올랐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메달처럼 단단하고 푸르스름하게 돌기가 부어올라 있었고, 그 위로 목 아랫부분에는 적갈색 빛이 도는 좀 작은 메달 모양으로 돌아나 있었다. 푸르스름하거나 노르스름하게 혹은 갈색 빛 등 다양한 색깔로 부어오른 돌기들이 목 주변으로 원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이 두 개의 ‘메달’이 떨어져 나온 듯 보이는 것이 마치 힌두신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비슷했다. UG의 몸에 돌아난 부어오른 돌기 자국과 인도 종교 예술품 사이의 유사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목이 부어올라서 턱이 코브라의 머리 위에 얹혀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시바상과 같았다. 콧대 바로 위에는 흰 연꽃 모양의 돌기가 돌아 있었다. 머리에는 온통 작은 혈관이 팽창되어서 붓다상의 머리 모양처럼 되어 있었다. 모세나 도가의 신비가들의 그것처럼 딱딱하고 큰 두 개의 혹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목에 있는 동맥이 팽창되어 푸르스름하고 구불구불하게 뱀처럼 튀어나와 머리로 이어졌다.)

나는 보여주려는 마음이 없지만 당신들은 의사들입니다. 인도에 상징으로 어떤 것이 있죠 – 코브라입니다. 여기 부어오른 것이 보입니까? 코브라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이었지요. 몸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이것이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쌓아뒀던 보호장벽이 부서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보름달, 반달, 초승달 등 달의 변화에 따라 여기 제 몸에 돌아난 돌기들이 코브라 모양을 띠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바 등등의 그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왜 그것이 코브라의 모양이어야만 하나요? 나는 의사들에게 내 몸에 이런 것이 왜 생기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어떤 분비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분비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도 내분비선을 연구하는 의사와 여러 번 논의했던 것입니다. 힌두인들은 이것을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이 내분비선은 힌두인들이 차크라가 있다고 추측했던 곳과 정확하게 같은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슴샘’이라고 하는 분비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분비선은 어릴 때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느낌은 매우 비상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가슴샘의 활동이 휴면상태에 들어요.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 선이 자동으로 활성화 되어서 모든 느낌이 살아나지요. 느낌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를 다치더라도, 그 다친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죠. (통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아!” 라고 합니다.

커피 농장에 머물 때 이런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광분한 상태에서 아이를 심하게 때려서 애가 새파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나에

게 물었습니다, “가서 애 엄마를 좀 말려 봐요.” 나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의아할 따름이었죠.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건가, 애 엄마? 아니면 아이? 누구의 책임이지?” 이것이 나의 답이었습니다. 둘 다 이상한 상황에 있었죠. 엄마는 자신의 화를 통제할 수 없었고, 아이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순진했죠. 소동은 계속되었고 그것이 전염되어, 제 등에서도 손찌검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소동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저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영향입니다. 이해되나요? 당신이 누군가를 두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당신이 그것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질문: 전 우주적으로요?

U.G.: 그건 너무 큼니다. 당신 의식의 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지요. 물론 의식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저기가 아프면 당신도 여기가 아픕니다. 당신이 아프면, 그곳에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는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당신 의식의 장, 다시 말해 특정 순간에 당신이 작용하고 있는 제한된 장 안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당신”이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분비선들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엔 분비선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뇌하수체가 있어요. ‘제3의 눈’, ‘아즈나 차크라ajna chakra’ 라고도 합니다. 일단 생각의 간섭이 끝나고 나면, 이 분비선이 역할을 시작합니다. 몸에너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것도 이 분비선입니다.

이 생각을 자기 보호 메커니즘으로 이용하지 않게 되면
생각은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생각이 연소되어 이온화하는 겁니다.
생각은 결국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이온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어 때로는 온몸을 재와 같은 물질로 덮습니다.

다. 생각이 아니죠. 생각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나 봅니다(ajna는 ‘명령’을 뜻한다). 나는 해석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생각으로 무장한 갑을 두르고 있어서 자신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도록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생각을 자기 보호 메커니즘으로 이용하지 않게 되면 생각은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당신들이 쓰는 과학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생각이 연소되어 이온화되는 겁니다. 결국 생각은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이온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어 때로는 온몸을 재와 같은 물질로 덮습니다. 전혀 생각이 필요치 않을 때 몸은 그런 물질로 뒤덮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에너지입니다. 연소되니까요. 몸이 열을 받는 겁니다. 이 결과 몸에 엄청난 열이 생기고 피부가(얼굴, 발, 모든 것이) 그런 재와 같은 물질로 뒤덮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단순히 물리적, 생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심리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신비한 내용도 없고, 종교적인 어조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십억 명 중에 한 명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십억 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정화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성수련sadhana을 해야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너무 순수해서, 의식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식에 불순함을 보탬 뿐입니다.

의식은 스스로 넘쳐흘러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 모든 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의식에는 오염입니다. 의식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당신의 경계가 무 지고 나면(그 경계는 당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무 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수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넘쳐 나오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 모든 비전을 가 집니다. 그 비전은 저 밖에 있는 것도, 당신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의식 전체가 갑자기 붓다, 예수, 마하비라, 모하메드, 소크라테스의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일 뿐,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거나 인류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유색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 유색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가슴을 드러낸 여성도 있었습니다. 별거벗고 있었죠. 인도의 성자들 중에 아까마하테비

Akkamahadevi와 탈레스와리Lalleswari라고 하는 두 성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별거벗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처럼 당신에게도 갑자기 가슴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생식기도 여성의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분열은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 그리고 의식이 추정했던 형상, 붓다라는 형상 혹은 예수라는 형상 등등에는 여전히 분열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사라지고 다른 것이 옵니다. 아마도 수백 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수많은 현자들rishis, 서양인들, 승려들, 여성들이 있었고 때로는 매우 이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먼저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당신 의식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성자들이 행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자의 행진”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성자들이 당신의 의식 밖으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식 안에 머물 수 없으니까요. 또 그 모든 것이 불순함이고, 오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확실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성자들, 현자들, 인류의 구세주들이 겪은 ‘폭발’이 인류 의식에 미친 영향 때문에 당신 안에 이런 불만족이 있고, 늘 터져나오려 하는 뭔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지 모르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이 지점까지 몰아붙이다가, 일단 목적이 이루어지면 임무가 완수되어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선이든 악이든,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신성하든 세속적이든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

신의 의식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여전히 불순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의식은 수천수만 가지의 것으로 오염되어 왔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태고의 원시 의식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단 의식이 ‘저절로’ 순수해지면 그때는 어떤 것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그것을 더 이상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 지점까지 존재했던 모든 과거도 더 이상 당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비전, 이 모든 것은 ‘재앙’이 일어난 후 3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분열된 의식 상태는 전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분열되지 않는 의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일어날 수 있지요. 런던 거리의 매춘부의 전화번호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내가 런던 거리에서 방황할 때 나는 나무에 매달린 그런 전화번호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나는 매춘부에게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전화번호 같은 것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읽을 책도 없었고 해서 그런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고 반복되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빠”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신이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경험은 당신을 원천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은 원시의 원적인 의식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순수의식이라고 불러도 되고 좋을 대로 불러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내면에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자도 없고, 그것들을 쳐다보는 자도 없

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절로 오고 갑니다. 갠지스 강물이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오물이 들어오고, 반쯤 탄 시체가 들어오고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물은 항상 순수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황당한 것은 감각활동이 스스로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감각을 연결하는 조절장치가 없었죠. 그래서 발렌타인과 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내가 꽃을 보고 “저게 뭐지?”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저것은 꽃이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몇 발짝 가다가 소를 보고 “저건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이 배경에 들어있을 뿐 결코 전면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 이상한 일은 무엇이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상한 상태에 있다고 느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주 제정신이고, 정상으로 행동하고 모든 것이 이상이 없는데 여전히 “이것은 무엇이지?” “저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이상한 물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발렌타인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네바에 있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내가 미쳤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미친 짓을 했다면 그녀는 나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저 늘 “저게 뭐지?” “저것은 암소요”하는 식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그녀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었죠. 그녀가 의사를 찾아가자 의사는

당사자를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며 나를 데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환상적인 일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저게 소냐고 묻지? 그것이 소든 당나귀든 말이든 무슨 차이인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지식은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더 이상 ‘이게 뭐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쳐다볼 때,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두고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일단 당신이 어떤 행운이나 우연한 기회로 그곳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삼매의 상태에 있습니다. 삼매에 들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거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작용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듯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이 작용하는 방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룩한 시스템들은 모두 영터리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순수의식^{awareness}을 통해서 심리적인 변형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모두 허튼소리입니다. 심리적인 변형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생물학적인 변형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나는 미치광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이야기는 전혀 두서가 없었습니다. 꼭 미치광이처럼 보이죠. 차이는 머리카락 한 올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미쳐버리거나 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운이 좋았든, 우연한 기회였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질문 : ‘깨달음 realized’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가요?

U.G. : 그렇습니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경은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밖에 무엇이 있나요? 나는 그것을 배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내 길을 걸어왔고 다른 사람의 길을 거부했는지를요. 이 점과 관련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결국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요.

질문 : 그러나 선생님 같은 사람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집니다.

U.G. : ‘그’(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다-역주)는 당신뿐 아니라 이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모든 사람과도 다릅니다.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이런 폭발을 경험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이 각기 독특하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자신들의 배경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는 공통되는 특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G. :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사겠지요. 나는 나 자신을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면, 대답해줄 겁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해탈시키려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 같은 것도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룩한 시스템들은 모두 엉터리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순수의식^{awareness}을 통해서 심리적인 변형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모두 허튼소리입니다. 심리적인 변형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생물학적인 변형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07.09~2007.03.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였다.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 실재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homepage: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